

내일을 봅니다 SBS 사보

발행 SBS • 편집 홍보팀 • 발행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20번지 • 전화 02-2113-3208 • 팩스 02-2113-3299

2011년 12월 29일 목요일 제945호

SBS 2012년 대기획

행복한 미래, SBS가 준비한다

연중캠페인 “마음을 열면 모두가 가족입니다”
소통하는 가족이 행복하다.
불통의 시대, 그 극복은 가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족 주위를 둘러봅시다.

〈만사소통萬事疏通〉



남과 북, 진보와 보수 등으로 나뉘어 분열되어 버린 대한민국. 평소 의견을 달리했던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 소통의 의미를 되새겨본 신년특집 다큐멘터리.

〈가족, 말을 걸다〉

우리시대 가족의 자화상 무언가족(無言家族).
상대방의 시선으로 가족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가정의 달 특집 다큐멘터리.

2012년, SBS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이어간다

〈HOPE FOR AFRICA〉

아프리카 희망학교 짓기 프로젝트 ‘HOPE FOR AFRICA’.

모금 활동을 넘어 (Beyond Media) 자립 토달 솔루션 제공. 5년간 총 100개의 ‘희망학교’ 건립.

나눔이 만드는 기적 〈희망TV 24〉 (연 2회 특별 생방송)

국내외 어린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보내 온 〈희망TV〉가 올해도 봄과 가을, 나눔문화 확산의 축제 한마당으로 다가갑니다.



대한민국, 리더십이 화두다!

보도 연중기획 〈잘 뽑아야 잘산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선거의 해 2012.
경제위기와 양극화, 세대갈등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리더의 조건을 모색한다.



명품사극 〈대풍수〉



뿌리깊은 나무를 잇는 또 하나의 명품대하사극. 고려 말 최고 풍수가 지상이 자미원국의 혈을 지키고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하기까지의 이야기. 험난했던 건국과정을 통해 역사속 리더십의 궤적을 살핀다.

격변의 시대, 인류문명의 나아갈 바를 묻는다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최후의 제국〉

인간중심의 시선으로 바라본 ‘富의 제국’의 최후. 위기의 시대, 인간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창사특집 경제문명 다큐멘터리.

프리미엄 시즌제 프로그램을 선도하는 SBS

〈K-POP STAR〉

K-POP의 산실, 국내 3대 기획사가 심사하는 신개념 오디션 프로그램.
차세대 K-POP 스타 발굴을 SBS가 함께 한다!

〈정글의 법칙〉

정글 속 생존을 위한
김병만 족의 처절한 몸부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본격 생존 리얼리티 프로그램.



올림픽채널 SBS

〈2012 런던 올림픽〉(7/27-8/12)



감동과 스토리가 있는
2012년 대망의 런던 올림픽!
참가 선수들의 감동적인 도전을
올림픽채널 SBS가 생중계한다.

차원이 다른 감동, SBS 문화예술

〈게르기에프 &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세계적 거장 게르기에프와 러시아 황실 오케스트라였던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의 내한공연.

〈랑랑 & 사라 장〉 듀오 콘서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와 중국 클래식
계 아이돌 랑랑이 함께 하는 꿈의 무대.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 대표
연주자의 협연을 통해
다가올 태평양 시대의
두 축인 양국간
수교를 기념한다.



돌아봐도 자랑스러운 2011

SBS 한해를 결산하다

(SBS팀장 58명 가운데 49명 대상 설문조사, 복수응답 실시)

2011년 SBS 10대 뉴스

1. 미디어렙 출범 - 29명



2. 종편 선정 및 방송 개시 - 22명

3. 케이블 지상파 무단 송신 소송 - 17명

4. 8시뉴스 앵커교체 - 14명



5. CDP 개발 등 경력 상담 프로그램 가동 - 12명



6. 퇴직연금제도 도입 - 11명

7. 2011 희망 TV - 9명



8. 뉴스센터 스튜디오 시설 개보수 - 8명

9. 희망내일위원회 출범, 반차휴가제 도입, HD NDS전환 및 통합운영 - 7명

10. 일산 촬영 전용 스튜디오 2개동 신축, 그룹 부서별 사회봉사활동 시작 - 5명



기타의견

서울디지털포럼
'초연결사회',
미래한국리포트
'경쟁의 딜레마',
CEO미팅 개시,
지상파 종일방송
금지규제 철폐 등



2011년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은?

드라마 부문

1. 뿌리깊은 나무 - 41명
2. 천일의 약속 - 9명
3. 보스를 지켜라 - 7명
4. 싸인, 신기생던 - 5명
5. 여인의 향기 - 4명
6. 무사백동수 - 3명
7. 시티헌터 - 2명



비 드라마 부문

1. 정글의 법칙 - 14명
2. SBS스페셜
'최후의 바다 태평양' - 11명
3. 런닝맨 - 9명
4. 짝, K팝스타 - 7명
5. 궁금한 이야기Y,
국민DJ를 찾습니다 - 4명



6. SBS스페셜
'남겨진 미래 남극'
강심장, 붕어빵,
개그투나잇 - 3명
7. 현장 21, 키스앤크라이,
컬투쇼, 힐링캠프 - 2명

2012년 연초에도 드라마왕국 명성 이어 간다



2012년 연초에는 <샐러리맨 초한지>와 <부탁해요 캡틴>이 지난 하반기 폭발적인 인기와 술한 신드롬을 낳았던 <천일의 약속>과 <뿌리깊은 나무>의 바통을 이어 받는다.

지난 12월 20일(화) 종영된 <천일의 약속>은 최고시청률 19.8%(AGB닐슨미디어리서치)를 기록하며 월화극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고 <뿌리깊은 나무> 또한 시청률 20%대를 유지하다가 마지막 방송은 27.3%를 기록했다. <뿌리깊은 나무>는 방송 후에도 시청소감 이벤트를 통해 500여 개의 글이 등록되는 등 명품 드라마로서의 자존심을 세웠다.

1월 2일(월) 첫 방송되는 <샐러리맨 초한지>는 드라마 <자이언트> 신화를 이룬 유인식 PD, 장영철·정경순 작가가 다시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중국 고전 '초한지'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샐러리맨들의 일과 사랑, 열정과 성공을 코믹터치로 그린다.

지진희, 구혜선 주연의 <부탁해요 캡틴>은 1월 4일(수) 첫 방송된다. 열정과 패기를 지닌 여성 부조종사가 파일럿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본격적인 항공 드라마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년특집 SBS 스페셜 만사소통 시사회

지난 12월 27일(화) 오후 2시 목동 사옥 14층 시사실에서 신년특집 SBS스페셜 <만사소통> 시사회가 열렸다. <만사소통>은 소통을 고민하는 한국인에게 권하는

실전 매뉴얼로 1부 '적과의 동침', 2부 '계급장을 떼라', 3부 '다가 가면 다가온다'가 1월 1일부터 3주 동안 방송된다.



'고릴라 나눔데이' 2200만원 기부

'SBS라디오 고릴라 나눔데이'를 통해 모인 기부금 전달식이 지난 12월 21일(수) 오후 3시 목동 사옥 12층 라디오 국에서 열렸다. 이날 기부금 총 2천200만원이 국제아동 권리기관 '세이브 더 칠드런'에 전달됐다. 2010년부터 사회 공헌 목적으로 릴레이 생방송으로 진행된 'SBS라디오 고릴라 나눔데이'는 지난 12월 1일(목) 러브FM과 파워FM을 통해 17시간 생방송됐다.



'SBS 사우회' 송년행사 열려



SBS사우회는 지난 12월 1일(목) 저녁 6시 서울가든호텔에서 임형두 사우회장과 우원길 사장 등 170여 명의 사우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Story와 음악이 있는' 송년행사를 가졌다.

2011 그리메상 이승춘, 허대선 촬영감독 대상

지난 12월 9일(금) 오후 7시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2011 그리메상 시상식에서 <시크릿 가든>의 이승춘·허대선 촬영감독이 대상을 수상했다. 신인상에는 <무사 백동수>의 정민균 촬영



감독이, 공로상에는 장준보 촬영감독이 선정됐다.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에서 수여하는 '그리메상'은 매년 방송다큐와 드라마 부문에서 뛰어난 영상미와 실험적 영상을 시도한 촬영 감독에게 주어진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한국도로공사, 5년간 5억 원 기부

지난 12월 26일(월) 오후 3시 목동 사옥 20층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기금 전달식이 열렸다. 김소원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기금위원회'에게 1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환아 치료비로 1억 원을 기부해 현재까지 총 5억 원을 기부했다.



2012년 임진년 용띠들의 한마디...



SBS미디어그룹 ERP는 내가 책임진다

방송지원본부 정보시스템팀 이상만 차장대우

지난주 일요일, 하루만에 두 친구의 부친과 장모를 다른 세상으로 보내 드리고 오는 버스 안에서 고향집 할머니 생각에 코끝이 찡했다. 93년도에 입사해 18년을 일했다. 그 사이 결혼해 가정도 꾸리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자식들이 무럭무럭 커가는 것도 지켜보고 있다. 가정, 직장, 사회에 대한 책임감은 나이가 들수록 커진다. 이것이 삶인가 보다. 시지프스가 짐을 지고 있을 때만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짐을 내려놓고 싶지 않다. 2012년 용의 해. 나에게 주어진 짐, 삶의 무게를 어깨에

지고 묵묵히 걸어 나갈 것이다.

지난 2010년에 그룹사 ERP를 오픈한 뒤, 2011년에는 안정화에 만전을 기했다. 종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그룹 3개사가 추가되어 이제 12개사 되었다. 2012년에는 각사의 특성에 맞춰 더욱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건강관리에 힘쓰겠다. 나이를 먹다 보니 모든 행복의 근원은 건강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과 공감대도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올해는 꼭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한번 가야겠다.

직장·육아 두마리 토끼 잡는 슈퍼맘 도전한다

편성실 아나운서팀 이병희 아나운서

어느덧 내 나이 36세, 입사한지 만 13년.

둘째를 낳고 복직한 2011년. 사실 결혼해서 둘째를 낳을 때까지 항상 걱정과 불안이 따라다녔다. 직장가 가정 일을 모두 잘 해낼 수 있을지, 주어진 것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걱정이 앞섰던 것 같다.

그러나 복직한 첫 날 라디오뉴스를 하는데 긴장되기보다는 왜 그렇게 좋던지.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다. 그렇다. 오히려 나는 지난 한 해 보다 자신감 넘치고, 성숙한 자신을 보게 되어서 기뻐다. 13년 동안 매일 해 오던 일인

데도 새삼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고, 두 딸은 직장 일에 대한 열정을... 또 직장 일은 가족에 대한 사랑을 더욱 일깨워 주었다. (하루 종일 곁에 있어주지 못한 미안함에 더 착한 엄마가 되는 듯하다) 긍정의 자세로 생각하니 모든 것이 다 감사한 한 해였다. 2012년은 흑룡의 해란다. 76년 태어날 때 맞은 용의 해.

학교 방송반에서 아나운서 첫 경험을 했던 88년, 입사하고 모닝와이드를 처음 시작했던 2000년 그리고 다시 슈퍼맘으로서의 용의 해가 찾아온다. 설렘은 똑같다.



방송기자를 천직삼아 정진하겠다

보도국 사회2부 문준모 기자

“예전엔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기사가 된다고 했잖아. 요샌 개가 사람을 물어도 ‘영상’ 만 있으면 기사가 되는 시대야.”

한 선배 기자가 담배를 한껏 들이마신 뒤 툭 내뱉은 푸념 한 마디. 농담처럼 들리지만 지난 1년 방송기자로서의 경험을 관통하는 ‘빠 있는’ 말이다.

많은 일이 있었다. MBC가 주말 뉴스 시간대를 8시로 옮겼다. HD로 전환됐고, 종편도 생겼다. SNS는 언론사보다 더 빨리 속보를 전파했다. 경쟁은 가속화되고, 기자들은 더 바빠졌다. 이런 혼란은 특히 사회부 기자들에게 더 빨리, 더 깊숙이 다가왔다. 시청률 전쟁이 불붙다 보니 때론 선정성 시비에 빛을 잃은 기사도 있었다. “지상파도 좋은 시절 다

지났다”는 말도 간간히 들린다. 방송사로 옮긴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들리는 얘기가 비관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성과물을 돌아봤을 때 긍정적으로 볼 측면은 적지 않다. 그 어느 때보다 기사의 질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분 30초라는 시간의 틀을 깨고, 현장성과 영상미를 갖춘 완성도 높은 기사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제 문제는 좋은 영상만 있으면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좋은 기사를 영상화할 줄 아는 능력이다. 이는 다시 “기자는 누구인가”하는 정체성 문제로 돌아온다. 내년뿐 아니라 12년 뒤, 24년 뒤 용띠 해에도 내가 계속 ‘기자’로 밥벌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그게 2012년을 맞는 결코 사소하지 않은 소망이자 다짐이다.

88년생 새내기, SBS에서 꿈을 펼치다

제작본부 이세영 PD

만 24년. 선배님들 앞에서 참 민망한 숫자입니다만, 어머니를 괴롭히며 요란스레 태어난 3.8kg의 우량아가 제 힘으로 첫 숨을 들이쉬 이후로 벌써 때가 두 바퀴나 돌았다니.

이제는 내 방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편집실에서, <강심장>을 편집하다 카메라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이승기가 마치 나를 보고 있는 듯 느껴져 나도 배시시 따라 웃게 되는 몽환의 상태를 겪고 있던 찰나, 며칠 전 홍보팀으로부터 부탁 받은 글이 생각나 자판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 잠시 잊고 지내던 ‘감사함’이라는 감정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불과 1년 전, 꿈처럼만 느껴지던 이곳에 제가 있습니다.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로 보였던 방송국 사람들과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제 의견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제가 쓴 자막을 보고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이런 사람이예요~” 하하! 이런 건방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난 20년간 쏟아주신 선배님들의 노고 덕분에, 지금의 후배들은 SBS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자랑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두 시, 두서없이 횡설수설 잡담을 쏟아낸 막내를 용서하시고, 2012년! 흑룡의 기운에 저 쌍용의 기운까지 더해져 선배님들의 행복을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